이제마, 불교서 영감 받아 사상의학 창시

박성식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기조 발제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날 사상의학의 이면에는 불교적 견해가 내포돼 있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일 종합발표회 개최

조선 말 이제마에 의해 창안된 사상의학. 한의학의 한 분야로 알려진 사상의학은 기존 한의학과는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다.

한 · 중 ·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의학은 역사의 깊이 만큼이나 다양한 이론과 학설이 있으며 그 기저에는 음양오행론이란 이론체계가 있다.

이제마는 이 음양오행론에서 오행(五行)을 대신해 사상(四象)을 오장육부(五臟六腑) 대신에 사장사부(四臟四腑)를 중심으로 한 이론을 제시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상의학이라 하면 체질에 따라 적합한 음식을 가려먹는 체질분류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마는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의문을 제시했다. 즉 인간에 대한 탐구인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월 19일 불교와 사상의학의 융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불교의 수행과 치유론을 사상의학론에 적용함으로서 불교학과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학문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박성식 교수(동국대 분당병원 사상체질과)의 '불교와 사상의학의 융합', 김진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와 사상의학의 병인론 비교', 박인성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마음챙김수행의 정신치료적 기능', 배효상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사상체질과)의 '애노희락의 정서를 통해 바라본 사상의학과 불교', 이자랑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계율에 나타난 분노의 정서와 참회를 통한 치유' 등 다양한 관계 논문이 발표됐다.

태양인-風 태음인-地
소양인-火 소음인-水
사상의학과 불교 사대 유사

이중 박성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사 · 심 · 신 · 물의 사상설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질론의 이론적 특징과 학문적 연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상의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을 검토했다.

박 교수는 "사상의학은 불교의 지수화풍 사대와 관련해 태양인은 풍, 태음인은 지, 소양인은 화, 소음인은 수의 성질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 불교의 십이처와 오온을 들었다. 박 교수는 "불교의 십이처설과 인간 존재의 구조를 밝힌 오온설에서 나오는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중국의학에 융화됐다. 이어 중국의학에 영향을 받은 한의학에 수용됐다"며 "중국 의서를 참고한 〈동의보감〉을 이제마가 보고 불교의 사대설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상의학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비록 유교적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불교적 견해가 내포돼있다. 한의학 중 심성론을 강조하는 사상의학과 불교의 마음챙김이 연결돼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이에 대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됐다.

김진무 교수는 '불교와 사상의학의 병인론 비교'를 통해 사상의학과 불교의학의 구체적인 접합점을 찾았다.

김 교수는 "불교나 사상의학이나 모두 그 목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병의 원인을 참다운 성인에 길에 들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교와 사상의학은 병의 원인으로 인간의 파악에서 찾는다"며 "이제마가 가장 중요한 병인으로 심화를 든 것을 보아 사상의학은 치병보다도 수양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교와 진화론, 윤리지향 같다

대한불교진흥원,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펴내

불교와 진화론의 관계에 대한 불교학자, 생물학자, 철학자들의 담론을 담은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이 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구랍 30일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을 출간했다.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은 2009년 11월 27일 대한불교진흥원이 개최한 '다윈 탄생 200주년 및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 기념 포럼'에서의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이 책에서 안성두 교수(서울대 철학과),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이한구 교수(성균관대 철학과), 최재천 교수(이화여대 에코과학부), 홍성욱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는 '생명'이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각 전공분야에서 불교와 진화론의 차이, 유사점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이한구 교수는 "불교가 가진 변증법적 사고는 윤리이론에서 진화론과 중첩 될 수 있다"며 "진화론의 최고 윤리단계인 생명평등주의가 불교의 불살생과 자비라는 생명윤리와 만난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한국불교학회 겨울 워크숍 개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2월 9일 '요가수행과 불교명상'을 주제로 동국대 대각전에서 겨울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샵에서는 임승택 경북대 교수의 '요가의 삼매와 불교의 선정', 김순금 원광대 교수의 '요가와 인도인의 정신세계' 강연이 진행되며 도창원 요가학원장의 '요가의 실천원리와 실수' 프로그램으로 요가를 체험할 수 있다.(02)2260-3835

노덕현 기자

교불연, 동계수련회 개최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준)는 2월 13~14일 서울 금선사(주지 법안)에서 동계수련회를 개최한다. (02)720-661

천진영 기자

일본 最古고승전 '원형석서' 완역

가장 오래된 일본의 역대 고승 열전이자 불교문화사 책인 〈원형석서(元亨釋書)〉가 국내 처음으로 완역됐다.

정천구(44) 부산대 한문학과 강사는 일본 가마쿠라 시대 임제종 스님인 코간 시렌 스님(1278~1346)이 45세 때인 1322년 완성한 〈원형석서〉 완역에 들어가 전 30권을 모두 한글로 옮겼다.

〈원형석서〉는 천황에게 진상된 당시 일본의 연호가 원형(元亨)이며 불교에 관련된 서적(釋書)이라는 뜻이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번역을 지원한 〈원형석서〉는 백제 성왕을 통해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6세기 중반 이래 저자가 생존한 당시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에 걸친 일본 불교의 역사를 승려들의 전기를 중심으로 체계화해 역사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고귀명수(鼓龜命數 : 육임운명판단법)"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曉史活人天役集 : 육임종합 CD프로램)" 2011 완결최종판 안내!

신용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보 · 내정 · 신분 · 귀신 · 부정 · 산소탈등의 정확도 · 편이도 · 효과성이 백미입니다. 미리 알고 먼저 말하게 되는 명품(名品)입니다.
http://한국육임학회 팝업에 **'활용효과성'**을 위한 아래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 완결최종판과 **'고귀명수'**의 각 설명 강의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완결 최종판 안내

1. 정 가 : 5백만원
2. 기 능 :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3. 업그레이드내역 :

가. 승인(인증)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 · 녀 구분 및 어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1). 근친상간자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위해 해당 천장 분별과 낮 · 밤 시간 구분 표시를 철저히 했음.
2). 남녀삼각관계(一男二女 · 一女二男)와 불비 · 부족관계에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三傳三合 / 四課 全 一 陽 · 陰)에 대한 채용 · 불채용의 적용을 명확히 했음. 이때 남자 또는 여자가 질투로 남자 또는 여자를 살해하게 되는 대상 남녀의 구분도 엄중히 했음.
3). 교동(狡童 : 남자가 타인의 부인을 유혹하여 색정거래 하는 것)과 음일(淫溢 : 여자가 남자를 적극 유혹하여 가출하려는 것)의 낮 · 밤 시간 판단구분을 철저히 했음.
4). 부인이 간사(姦私)로 남편을 살해하는 대상 여인도 엄중히 구분해 적시 했음.
5). 데릴사위 신분임을 철저히 구분해 적시했음.
6). 처에 의한 소송을 당하는 남자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7). 부부이별 하는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표시 했음.
8). 상신(傷身) 또는 불구(不具) 여부가 본인 · 처첩 · 자녀 · 부모 · 형제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엄중히 표시 했음.
9). 혈광사의 대상과 암매사의 대상을 양일(陽日)과 음일(陰日)로 분명히 구분시켰음.
10). 고등(사법 · 행정 · 외무 · 변리 · 회계)시험과 대학입학 시험 합격자 및 선거 당선자 여부를 별도로 표시 했음.
11). 12귀신(作事鬼 病鬼) 중 '여귀(女鬼)' '음귀(陰鬼)' '가택귀(家宅 鬼)'의 종류를 새로 보강 했음.
12). 12부정(邪崇)중 부정침범부위(신변 · 가택 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태에서의 '뱀굴' 여부 · '복골' 여부 · '水듬'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 木 · 火 · 土 · 金 · 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후회하는 일인가?
사) 밝혀도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 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 · 2 · 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 · 보강 · 삭제 시켰으므로 완결 최종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4.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 CD 프로그램"의 교환 요구가 많아 2011.1.24-2.15일까지 교환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 교환가격	위 Ⅰ	90만원
	위 Ⅱ	70만원
	위 Ⅲ	50만원
	위 2010완결판	30만원
■ 분개(分個)육임산책 CD		150만원
■ 분개(分個)육임래정비법		100만원

www.taotemple.net

=.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문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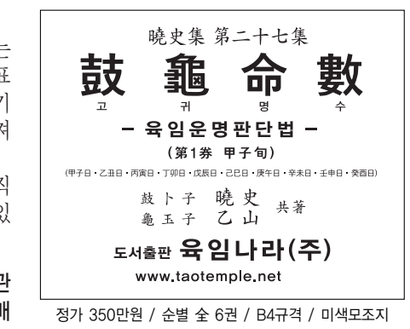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섭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해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 들이 또박 또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 · 질병 관계 / 직업 · 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겸용) / 배우자 성정 · 용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부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 ·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 친 · 구(親 · 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 · 길흉관계 / 띠별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운명 관계 / 초년 · 중년 · 말년 길흉 및 육친 불행관계 / 초 · 중 · 말년 12작사귀 · 12병귀 · 침범관계 / 신변 · 가택 · 초 · 중 · 말년 12부정 침범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겠는가? 관계 / 묘지 속 '뱀굴' '복골' '水듬' 관계 / 남녀 혼인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체(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 행로(行路) 관계 / 살인 · 색정 · 생사별 · 사고 · 사건 관계 / 12궁위(本命 · 財 · 兄弟 · 田宅 · 子息 · 奴業 · 夫婦 · 病危 · 遷移 · 官職 · 老後福德 · 相貌) 길흉 관계까지**, 육임의 장점인 정확도 · 신속도 · 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정가 350만원 / 순별 全 6권 / B4규격 / 미색모조지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즉 복 · 명(卜 · 命)을 합쳐 '명운(命運)'과 '당면사정(當面事情)'들이 모두 한 면 한 눈에 들여다 보이게끔 구성시킬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상(日常)을 떠난 세월'과 '육임에 대한 역사성'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해 낼 작업이었고, 애제자 귀옥자 乙山의 외지조응(外之助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귀명수'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 · 복 활용서'로 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으로까지 이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흑 · 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잣대'이면서 '칼'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 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위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辛卯 季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진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 · 학습서들 입니다. 아래 활용서들은 육임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오행술을 몰라도 바로 활용하여 효과를 얻게끔 한글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도사에게물어봐(2011 증보판)
-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2011 개정판)
- 육임풍수(2011 개정판)
- 육임 1년신수비결(2011 개정판)
- 육임래정비법(증보개편판 : 휴대용 좌정용)
- 도정기(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 고품격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감동심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 · 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전서(2011 개정판)
- 본 효사활인 천역집(2011판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 CD(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변집부록(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2011 개정판)

※ 학습서
- 효사육임강론(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 上권 : 육임각법종합구성 / 2050쪽(학습용)
  · 下권 : 육임서 역대저자 머리글 / 육임대요문답/ 사과삼전보기요령/항목별주요신장제시 /사과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 초사 / 국수해설 / 항목별성부단정 수록 / 2015쪽(임상용)

육임강의 「도술(방법실기)반」 접수받습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예금주 : 육임나라(주)]

※ 카드결제 가능함 ※